

1. 도시 야간 조명과 환경

Lighting of Urban Light View and Environment

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즘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는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목 차

1. 도시야간 조명과 환경
2. 도시환경과 조명의 역할
3. 도시공공 디자인 시설물과 조명
4.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

필자 : 손장복, 현 동양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by Sohn, Jang-bok



- 한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 이사, 조명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 한국 도시경관학회 부회장
- 한국 IBS 코리아 협회 이사
-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인천시 경관 위원회 위원
-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심의회위원

1. 도시 야간 조명과 환경

오늘도 도시속에서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어쩌면 머리 들어 하늘 한 번 보는 것조차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보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넘기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에게 도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인식되어지면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전문용어들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이는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현대인들의 욕구 표현이기도 하다.

도시는 물, 건축물, 다리, 집, 나무 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모여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에 주간과 야간에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환경을 물, 공기, 빛으로 크게 구분하여 꼭 필요한 요소로 꼽는다. 이중 물과 공기는 필요에 따라 운송이나 사용이 가능하다. 즉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빛은 보관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야간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는 자연광이 없어 오랜 시간 햇빛이나 그와 유사한 빛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00년전 에디슨에 의해 인공광원이 발전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인공광원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관조명(도시 야간 조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시기는 1993년 대전 엑스포 때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1982년 통행금지 없어지면서 도시 야간경관 조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등 대형 행사를 치르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 야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명 산업도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만불 소득을 넘기면서 IMF로 잠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2년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다시 희생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은 2만불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경제적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에너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도시 야간 연출조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도시의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도시의 쾌적한 삶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도시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경쟁은 국가와 국가에서 도시와 도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경

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끌어올 수 있는 도시의 쾌적함과 호기심, 안전성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도시 야간 조명계획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도시야간환경은 현재까지 관광산업측면에서 보자면 그 결과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의 경우 그 나라에 역사와 문화 등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야간환경은 사실 그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도시에 있어서 야간에는 무엇으로 그 도시가 인식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도시에 특징이 될 만한 대상을 찾아 조명으로 연출함으로써 빛에 대한 강조와 삭제를 과감하고 적절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증을 토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도시에 중요 대상을 상대로 야간조명계획을 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검토사항을 보자.

도시의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도시전체의 Profile을 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와 도시의 경계는 자연적 지형이나 하천, 도로 등에 의해서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도로나 하천은 도시의 외곽요소마다 환경에 알맞은 연출조명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하천은 지역적 경계를 가질 수 있어 상징적 요소가 되므로 자연적인 느낌이 강하여 연출조명으로 좋은 Profile을 연출할 수 있다.

야간스카이라인(Skyline)형성

해외의 예를 보면 뉴욕의 맨하튼과 같은 상업 및 교통 밀집지역에는 고층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다. 이와 같이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상부조명이 건축과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파트 건축물에 이러한 조명연출방식을 이용하기



국회의사당



상제리제 거리



1. 에펠탑 2. 타워브릿지에서 바라본 도시 3. 템즈강의 상징적 타워

는 하나 이는 주거공간에서 사용하기는 조금문제가 있으며 건축물에 수평적 요소만을 너무 강조하여 마치 우주선이 떠 있는 것 같은 연상을 하게 된다. 이 렇 경우는 건축물에 수직적요소를 살려 메스감을 살려야 한다.

또한 야간스카이라인 형성을 될 수 있으면 상업공간에 맞는 연출방법이므 로 주거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징성과 경관 랜드마크(Landmark) 효과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나 독특한 건축물 또한 교각, 도로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랜드마크이다.

도시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리의 에펠탑과 노트담 사원, 라데팡 스, 런던의 버킹검궁전과 의사당 템즈강의 상징적인 타워 이들은 그도시만의 특징을 부각시켜 도시의 정체성을 이미지로 연출된다.

도시계획을 이용한 경관조명연출

새로운 도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그 특징적 목적에 따라 조명연출도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업지역은 규모나 특징적 조명방식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눈을 끄 는 호기심 유발 등에 역점을 두지만 주거지역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은은한 정 도가 좋다. 이러한 공간적 배려는 도시계획에서 야간연출에 매우 개성 있는 매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중요하다.

이외에도 경관조명 디자인에 목적과 효과나 유의사항, 조명방식 등 도시 야간조명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다음은 도시야간의 환경에 대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이나 공원, 교각 등에 대해 야간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환경에 대한 주제나 법률 등은 미미한 상태이다.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도시 야간조명설계에는 조명, 건축, 전기, 조정 등 도시 계획 전문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 전반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관조명은 상업적인 성향이 높아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배려나 인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외국의 도시계획에서는 공원이나 산책로, 도로 등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선 정방법을 매우 까다롭고 치밀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공원에 살고 있는 또 는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과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 령 조명기구에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조류에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조명에 시 간대별 운용을 철저히 통제한다든가 조명 광원에 색온도나 용량 등을 철저 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실천해야 한다.

중국의 예를 들자면 얼마 전 황하강 범람이 어이없게도 일본에 나무를 수출 하기위해 마구잡이식 훼손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결국 자연의 훼손은 큰 재 앙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환경이란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알 차게 만들어 가야하며 조명문화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넉넉 함을 주고 미래 후손들에게는 잘 보존된 아름다운 새로운 환경의 기회를 주어 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도시야간환경조명이 우리 도시환경 분위기를 활기차게 밝게 만들 어 줌으로써 높은 시민의식과 질서 범피 없는 국가를 만들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